



요시나가 리미코씨

1951년 6월 2일생

1954년 3살때, 아버지가 급성 극성(劇性)형 미나마타병 발병. 2년 후에 사망. 같은 해 1956년 어부이면서 9년간 누운채로 일어나지 못했던, 할아버지도 사망.

1997년 10월부터 미나마타병의 증언인으로 됨. 현재 NPO 법인 미나마타병교육여행플래닝에 근무. 미나마타병가족으로서의 경험, 용기를 지니고 생활하는 소중함 등을 이야기함. 1999년 4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병자료관 증언회 부회장.

미나마타시 묘진초 재주

저는 묘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배를 짓으시면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미나마타병 발생당시, 집 주위에는 4호의 집밖에 없었고, 모두들 밭에 가서 야채를 심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자급자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양친, 형제 넷 인 8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1948년 무렵에 발병하고, 1951년 36살에 아버지가 발병했습니다. 회사일이 끝나면 고기를 잡아다가 생계를 만들어서 도시락에 싸갈 정도로 물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학병원에 1년정도 입원했습니다.

입원기간은 병원의 음식을 먹었기에 병증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후, 영양보충을 하기 위하여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병증이 악화되어 2번째로 입원했을 때는 경련이 심해지고 20일 후 38살에 세상땀했습니다. 9년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었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를 집에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미나마타병이라는 소리만 들리면 귀를 틀어막았었습니다. 15년전에 ‘모야이’ 집회에 참가해서 미나마타병에 관한 책을 읽고, 일찌기 짓소의 폐수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게 하지 않았던 국가, 멈출 수 없었던 짓소의 일들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통함은 보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마타병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조새했다라면 병증이나 치료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미나마타병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빨리 대처했다라면 돈도 많이 들지 않았을겁니다.